

# 김태리 3번째 선택은 ‘유기농같은 영화’

데뷔작 ‘아가씨’ 이어 ‘1987’도 흥행 성공  
2월 개봉 ‘리틀 포레스트’서 삶의 위안 선물

데뷔작부터 연속 흥행에 성공한 배우 김태리가 세 번째 무대에서는 작지만 강한 영화로 나선다. 화려한 대작에 참여해온 그는 이번에는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청춘의 모습으로 관객을 찾아 간다.

김태리가 세 번째 주연영화 ‘리틀 포레스트’(제작 영화사수박)를 2월 말 내놓는다. 현재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는 영화 ‘1987’로 흥행의 기쁨을 맛보고 있지만 이 같은 성취를 뒤로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낸다.

‘리틀 포레스트’는 도시에서의 일상에 지친 주인공이 고향으로 돌아와 친구들을 만나고, 사계절 동안 직접 농사지는 작물로 제철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이야기를 담았다. 특별한 사건도, 극적인 반전도 없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유기농’ 같은 영화다.

김태리는 영화의 원작인 동명 일본 만화의 팬으로도 알려져 있다. 만화의 영화화가 추진되고, 그 연출을 임순례 감독이 맡는다는 소식에 그는 여러 고민 없이 참여를 결정하고 1년의 시간을 쏟아 부었다.

김태리는 시골 마을에서 겪는 사계절을 몸소 그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한 장면.

사진제공 | 영화사 수박

려낸다. 제작진은 컴퓨터그래픽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계절 풍경을 그대로 스크린에 담은 것은 물론 각종 채소와 벼농사까지 직접 지어 촬영했다. 이런 시도에 응한 김태리 역시 1년간 계절별로 진

행된 영화 촬영에 집중했다.

데뷔작 ‘아가씨’와 최근 주연한 ‘1987’을 통해 극적인 상황과 인물을 소화해온 김태리가 잔잔하게 흘러가는 이번 작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궁금증을 낳는다. 이와 함께 그동안 두 편의 영화에서 김윤석, 하정우, 유해진, 강동원 등 쟁쟁한 배우들과 호흡을 맞췄지만 이번에는 극을 이끄는 ‘원톱’ 주연이란 사실은 그의 실력을 다시 가늠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리틀 포레스트’는 설 연휴가 겹친 2월 개봉하는 여느 상업영화들과 비교해서도 전혀 다른 분위기로 관객의 시선을 자극하고 있다. 극적인 이야기보다 주인공이 삶의 위안을 찾는 과정을 담백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차별성이 확실하다. 한국영화에서는 자주 보기 어려운 장르라는 사실에서 희소성도 높다.

임순례 감독은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소재가 주를 이루는 요즘, 관객들에 편안하고 기분 좋은 휴식 같은 영화를 선물하고 싶어 연출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태리 역시 “참여하는 작품마다 다 의미가 있지만 ‘리틀 포레스트’는 새로운 느낌의 영화”라고 기대하며 “그동안 선배들과 주로 연기해왔지만 이번엔 또래인 류준열, 진기주와 호흡을 맞출 수 있어 더 편안하게 촬영했다”고 돌아섰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배우 김태리가 2월 개봉하는 새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소박한 청춘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 강주현의 퍼즐월드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 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 스토쿠문제

|   |   |   |   |   |   |   |   |   |
|---|---|---|---|---|---|---|---|---|
| 5 | 9 |   |   |   |   |   | 1 | 4 |
| 2 |   |   |   | 3 |   |   |   | 6 |
|   |   |   | 1 | 8 | 5 |   |   |   |
|   |   | 2 |   | 7 |   | 3 |   |   |
|   | 3 | 9 | 2 |   | 1 | 7 | 8 |   |
|   |   | 1 |   | 5 |   | 4 |   |   |
|   |   |   | 7 | 1 | 6 |   |   |   |
| 9 |   |   |   | 4 |   |   |   | 7 |
| 1 | 7 |   |   |   |   |   | 5 | 2 |

|   |   |   |   |   |   |   |   |   |
|---|---|---|---|---|---|---|---|---|
|   | 9 |   |   | 3 |   |   |   | 6 |
| 7 | 3 |   |   | 8 |   |   | 5 | 2 |
|   |   |   | 2 |   | 1 |   |   |   |
|   |   | 8 |   | 5 |   | 6 |   |   |
| 1 | 6 |   | 9 |   | 4 |   | 8 | 5 |
|   |   | 5 |   | 6 |   | 7 |   |   |
|   |   |   | 6 |   | 2 |   |   |   |
| 2 | 1 |   |   | 7 |   |   | 9 | 6 |
|   | 5 |   |   | 1 |   |   | 4 |   |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

(모바일) WWW.매직스도쿠.kr

### ■ 스토쿠정답

|   |   |   |   |   |   |   |   |   |
|---|---|---|---|---|---|---|---|---|
| 2 | 9 | 9 | 8 | 6 | 8 | 7 | 2 | 1 |
| 2 | 8 | 1 | 2 | 7 | 9 | 9 | 8 | 6 |
| 8 | 7 | 6 | 9 | 1 | 2 | 9 | 2 | 8 |
| 6 | 2 | 7 | 8 | 9 | 8 | 1 | 9 | 2 |
| 9 | 8 | 2 | 1 | 9 | 2 | 6 | 8 | 7 |
| 1 | 9 | 8 | 6 | 2 | 7 | 2 | 9 | 8 |
| 8 | 6 | 2 | 9 | 8 | 1 | 2 | 7 | 9 |
| 9 | 2 | 9 | 7 | 8 | 6 | 8 | 1 | 2 |
| 7 | 1 | 8 | 2 | 2 | 9 | 8 | 6 | 9 |

|   |   |   |   |   |   |   |   |   |
|---|---|---|---|---|---|---|---|---|
| 2 | 7 | 2 | 6 | 1 | 8 | 8 | 9 | 9 |
| 9 | 6 | 8 | 8 | 2 | 9 | 7 | 1 | 2 |
| 1 | 8 | 9 | 2 | 7 | 9 | 6 | 2 | 8 |
| 7 | 1 | 2 | 8 | 9 | 8 | 9 | 2 | 6 |
| 9 | 8 | 8 | 7 | 2 | 6 | 2 | 9 | 1 |
| 6 | 2 | 9 | 2 | 9 | 1 | 8 | 7 | 8 |
| 8 | 2 | 7 | 1 | 6 | 2 | 9 | 8 | 9 |
| 2 | 9 | 6 | 9 | 8 | 7 | 1 | 8 | 2 |
| 8 | 9 | 1 | 9 | 8 | 2 | 2 | 6 | 7 |



사진 속의 인물은 동일인물이 아니다. 페라리의 창시자 엔조 페라리(왼쪽)와 축구스타 메수트 외질(오른쪽)의 사진이 나뉘는 정도로 닮은 얼굴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경선 Joshua Kim 유튜브 화면캡처

##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우연의 일치들

### 대박! 이거 봤어?

우연도 도가 지나치면 무섭다. 한 유튜브버가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우연들을 모아 영상으로 만들었다. 우선 모두가 알고 있는 타이타닉이다. 타이타닉호는 1912년 빙산과 충돌해 침몰했다. 그런데 14년 전 모건 로버트슨이 쓴 퓨틸리티라는 책은 타이타닉과 너무나 흡사한 소재를 다루고 있었다. 여객선이 빙산과 충돌해 가라앉는 내용으로 이 배는 4월 자정에 영국 뉴펀들랜드 해안 동쪽 400마일 해상에서 침몰한다. 놀랍게도 타이타닉은 4월 15일 자정에 뉴펀들랜드 해안 동쪽 400마일 자점에서 사고를 당했다. 책 속의 배는 타이타닉과 크기, 승객 수, 구명보트 수까지 거의 비슷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책에 등장하는 여객선의 이름은 ‘타이탄’이었다.

1940년에 태어난 쌍둥이는 서로 다른 양부모에

게 입양됐다. 쌍둥이는 물론 양부모들도 서로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부터 기막힌 우연이 시작된다. 양부모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제임스’라는 이름을 지어줬으며 쌍둥이는 성장해 둘 다 법과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된다. 둘 다 린다라는 이름의 여인과 결혼했고 아들을 낳아 ‘제임스 알렌’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둘 다 이혼하게 되며 황당하게도 모두 베틀라는 이름의 여성과 재혼한다. 하다못해 키우는 개 이름(토이)까지 같았다. 이 모든 사실은 두 사람이 생후 39년 만에 만나면서 밝혀지게 된다.

당신은 환생을 믿으시는지? 페라리 기업의 창시자 엔조 페라리는 1988년 생을 마감한다. 같은 해 세계적인 축구선수 메수트 외질이 태어난다.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엔조 페라리가 환생해 외질로 태어난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떠돌기도 했다. 죽은 해와 태어난 해가 같은 정도로 무슨 호들갑이냐고? 이들의 사진을 보면 자연스레 쉽게 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 에듀윌

국가직 경찰공무원 합격생 인터뷰

## 경찰공무원 합격 비법은 “교수님과 적극 소통”



“저의 합격 비법은 교수님과의 적극적인 소통 덕분입니다”. 국가직 경찰공무원에 합격한 임 모씨의 합격 스토리를 들어본다.

임 씨는 수험생활 중 교수님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에듀윌에서 공부했는데, 교수님들이 언제 연락을 해도 정성껏 설명을 해주셨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혼자 알지 말고 교수님을 활용하면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 씨는 뒤이어 경찰직공무원 수험생에게 “경찰직은 체력관리도 중요하다. 초반에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소홀할 수 있는데, 최종 합격에는 체력관리가 필수다. 두 세 정거장 전에 내려 걷기 등을 실천하면서 기초체력을 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활동적인 자격증 취득도 이야기했다. “합기도 자격증이 있었고, 의경 생활을 하면서 대형면허와 워드 자격증도 취득했다”며, “덕분에 여러 방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험방법으로는 필기시험 직전까지 강의들 들으면서 회독 수를 늘려 나갔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이해도 빠르고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영어는 하루에 영어 단어를 100개씩 암기했고, 양이 방대한 한국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공부했다.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등 삼법은 단권화했고 시험 날 전부터는 하루 한 과목을 다 훑어볼 수 있도록 자신만의 요약집을 만들었다고 한다.

임 씨는 마지막으로 “공부하기 싫을 때는 경찰이 됐을 때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월 17일(수) 음력: 12월 1일

|                                                                                                  |                                                                                                                                                |                                                                                                                                   |
|--------------------------------------------------------------------------------------------------|------------------------------------------------------------------------------------------------------------------------------------------------|-----------------------------------------------------------------------------------------------------------------------------------|
| <br>행운색: 흰색 |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br>운세: 문서상의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성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반복되는 일로 피곤한 날이나 의외로 놀랄만한 결과도 얻을 수 있는 날이다.      | 길방:서<br>운세: 문서상의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성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반복되는 일로 피곤한 날이나 의외로 놀랄만한 결과도 얻을 수 있는 날이다.       |
| <br>행운색: 흰색 |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한 마음.<br>운세: 시시한 일들로 인해 해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좋으나 중도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이유는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무르익은 기운을 바탕으로 하여 결실의 답을 쌓는 날이다.     | 길방:서<br>운세: 시시한 일들로 인해 해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좋으나 중도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이유는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무르익은 기운을 바탕으로 하여 결실의 답을 쌓는 날이다.      |
| <br>행운색: 적색 |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br>운세: 마음은 급한데 몸은 한없이 게으르고 싶은 날이다. 육체적인 일 보다는 정신적 두뇌활동을 통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날이다. 오늘은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거망동을 삼가 하라.         | 길방:남<br>운세: 마음은 급한데 몸은 한없이 게으르고 싶은 날이다. 육체적인 일 보다는 정신적 두뇌활동을 통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날이다. 오늘은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거망동을 삼가 하라.        |
| <br>행운색: 검정 |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br>운세: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이제까지 잘 나갔던 사람은 흉한 날이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흉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뱀피를 만나 자문을 구하면 길을 찾을 것이다.    | 길방:북<br>운세: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이제까지 잘 나갔던 사람은 흉한 날이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흉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뱀피를 만나 자문을 구하면 길을 찾을 것이다.   |
| <br>행운색: 적색 | 오늘의 마음:싸늘, 소심한 날.<br>운세: 뜻하지 않는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시험 준비 과정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멋지게 발휘하는 날이다. | 길방:남<br>운세: 뜻하지 않는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시험 준비 과정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멋지게 발휘하는 날이다. |
| <br>행운색: 노랑 |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br>운세: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추진력이 대단하다. 자신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게 되며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진급하게 된다.     | 길방:중앙<br>운세: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추진력이 대단하다. 자신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게 되며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진급하게 된다. |
| <br>행운색: 청색 |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br>운세: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격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마음이 급해지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기운이다. 괜히 성질부리다 자신만 상처 입는 날이다. 원숭이띠가 귀인이다.       | 길방:동<br>운세: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격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마음이 급해지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기운이다. 괜히 성질부리다 자신만 상처 입는 날이다. 원숭이띠가 귀인이다.       |
| <br>행운색: 적색 |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해결.<br>운세: 머리를 써서 기발한 묘책으로 상대를 누르고 실리 달성을 획책하려는 기운이 강한 날이다. 현재는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다. 전력을 기울여 정면 돌파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남을 믿지 말라.           | 길방:남<br>운세: 머리를 써서 기발한 묘책으로 상대를 누르고 실리 달성을 획책하려는 기운이 강한 날이다. 현재는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다. 전력을 기울여 정면 돌파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남을 믿지 말라.            |
| <br>행운색: 검정 |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br>운세: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끈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결국 욕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을 하라. 의외의 금전수익이 있을 수 있으나 독식할 수는 없다. | 길방:북<br>운세: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끈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결국 욕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을 하라. 의외의 금전수익이 있을 수 있으나 독식할 수는 없다. |
| <br>행운색: 검정 |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br>운세: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 길방:북<br>운세: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
| <br>행운색: 적색 |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br>운세: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좋아지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아가라.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말라. 토끼띠가 귀인이다.  | 길방:남<br>운세: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좋아지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아가라.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말라. 토끼띠가 귀인이다.  |
| <br>행운색: 흰색 |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br>운세: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쉬울 때이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 길방:동<br>운세: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쉬울 때이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
|             |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1, 4, 6, 9, (2, 7)<br>금일복권, 주식, 부동산매입 행운의 띠: 호랑이, 말, 개<br>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토끼, 양, 돼지                                          |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